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HGIT Newsletter

2019년 6월 창간/21호

<http://tourism.hanyang.ac.kr/>

2019년 6월 21일 #1

글의 순서

1. 신입 편집부원을 소개합니다.
 2. 힐링과 건강, 두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여행자라면?
요가투어!
 3. 다른 항공사에는 없는 에미레이트항공의 이모저모!
 4. 낭만의 도시 파리로 떠나보아요
 5. '필리핀의 숨은 진주 보홀'
 6. 서울의 경이로움을 온전히 느끼고 싶으신가요?
 7. 우리가 몰랐던 이슬람 이야기 - 신성한 한달, 라마단
 8. 국내 입국 면세점의 도입과 향후 면세 한도
 9. 축제 & 페스티벌
 10. 미야자키 해외답사
- ☺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

1. 신입 편집부원을 소개합니다.

글/구성 38기 성주한

38기 송미나



이번에 처음으로 한양대 국관원 뉴스레터에 글을 게재하게 된 38기 송미나입니다. 저는 6년간 아랍 에미레이트의 국영항공사 에티하드 항공에서 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승무원 후배 양성을 위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스레터를 통해 아랍, 이슬람 문화나 중동국가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

38기 유은휘



38기 유은휘라고 합니다. 다시금 관광인으로서 길을 가보고자 입학한 대학원 생활을 조금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를 전하는 글을 다룬다는 것의 까다로움을 느꼈고, 소재의 선정과 글의 구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와 소재로 찾아 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기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39기 김정연입니다. 여행으로 누군가 행복해지는 게 보기 좋아, 사람들에게 여행을 보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원우님들과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뉴스레터에 참석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부족하지만 뉴스레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기 정희수



안녕하세요. 신입부원 39기 정희수입니다! 저는 시그니엘 서울 객실담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 책 읽고 메모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번 기회에 국관원 뉴스레터 부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경험들을 흥미롭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 “힐링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여행자라면? 요가투어!”

글/구성 37기 오은영

#워라벨 #힐링 #웰빙. 최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 키워드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바로 소중한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지친 나를 위한 휴식을 갖기 위해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현지의 유적지와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여기 색다른 여행의 방법인 ‘요가 투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가’는 기원전 인도에서 정신수련법으로 시작되어 운동개념이 접목되어 발전해왔습니다. 코어 근육을 단련시키고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명상을 통해 내면의 건강을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세계적인 럭셔리 리조트 포시즌스 호텔 앤드 리조트(Four Seasons Hotels and Resort)는 호텔 투숙객의 신체와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한 ‘글로벌 웰니스 프로그램’을 새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토, 세렌게티, 호이안, 하와이 등 포시즌스 리조트에서 현지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다양한 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신을 바꾸기에 충분한 하루>라는 캠페인 슬로건을 두고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인도를 비롯하여 일본, 발리, 하와이, 캄보디아, 베트남, 치앙마이 등 세계 각지에서 요가 투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외에도 괌, 뉴욕 등 지역 단위로 소규모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히 참여할 수 있는 요가 프로그램과 요가 투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진행하는 ‘Yoga Tr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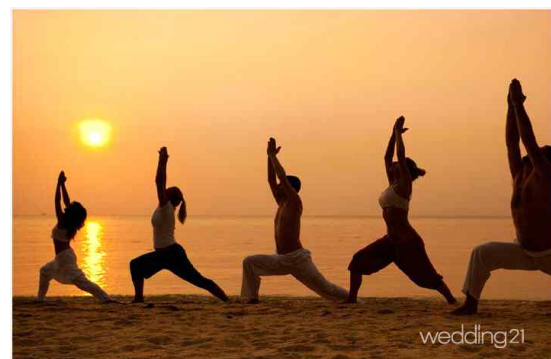


자유의 여신상, 덤보 브릿지, 타임스퀘어를 비롯한 뉴욕 관광의 필수 코스로 ‘센트럴 파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센트럴 파크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중 이색

활동인 ‘Yoga Trail’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뉴욕시에서 허가를 내준 정식 프로그램이며, 센트럴 파크 내에서 요가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하고도 특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요가원 사이트에서 15\$의 수강료를 내고 미리 신청해야 하며 센트럴파크 중심 광장 초원에서 75분간 수업이 진행됩니

다. 수업 난이도는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동작부터, 코어근육을 꽤나 요구하는 중, 고급 동작들까지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요가 인스트럭터가 개인의 몸 상태와 요가 실력에 따라 난이도 조절과 코멘트를 제공하니 뉴욕에 간다면 오전 시간을 투자해서 이색 경험을 하는 건 어떨까요?

#2 인도네시아 발리 우붓지역의 요가투어



요가 여행으로 가장 핫한 곳을 꼽으라면 인도네시아 발리의 우붓지역을 꼽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요가 프로그램으로, 요가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요가투어 선호지역 1순위로 평가됩니다. 발리의 우붓지역에서는 약 80개 이상의 요가 수련원이 있으며 원데이 클래스를 비롯해 해안가에서 하는 요가, 테라스 요가, 잔디 요가 등 요가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초보자와 관광객에게는 ‘The Yoga Barn’ 수련원이 인기 있으며 요가 중수 이상은 프라이빗 수련원인 ‘Radiantly Alive Yoga Studio’나 ‘SUP Yoga Bali’를 추천합니다. 발리의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는 석양요가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니 힐링 여행을 원한다면 우붓지역의 리조트에서 맛있는 인도네시아 음식과 함께 요가 투어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행지에서 간단한 요가 프로그램을 체험해보고 싶다면, Trip advisor, My real trip 과 같은 여행사이트로 키워드 검색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의 많은 요가 수련원의 원데이 클래스나 호텔, 리조트 내의 요가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 세계에서 현지의 자연과 개성을 듬뿍 담은 요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색 경험을 통해 기억에 남을 여행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다른 항공사에는 없는 에미레이트항공의 이모저모!

글/구성 37기 이서윤

다른 항공사에는 없는 에미레이트항공의 이모저모!

1. 승무원 마음대로 만드는 비행 스케줄

회사에서 짜준 비행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하지 않아요. SWAP 시스템을 통하여 동료의 비행과 나의 비행이 서로 맞변경 가능하고, 내가 가고 싶은 나라와 도시가 있다면 REQUEST를 통해 매달 신청이 가능해요. 회사 내규로 제한이 없기에 오프나 레스트 규정이 부합한다면 정해진 기간내에 회사 포탈을 이용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1년에 휴가는 30일, 최대 15일 연속으로 쓸 수 있고 LIVE LEAVE 를 통해 15일 이내의 갑작스러운 5일 휴가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집 떠나와 두바이에 사는 크루들의 왕복 비행시간까지 고려해 휴가 앞뒤로는 오프가 2-3일 추가되는 센스도 있답니다!



2. 친구 25명에게 반값 티켓 쓰고 두바이 초대하기

대부분의 항공사 승무원들이 가지게 되는 승무원 본인의 90% 스탠바이 티켓 그리고 50% 컨펌티켓, 타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는 zed 티켓 이외에 가장 큰 장점인 이것! 부모님, 뿐만 아니라 형제와 자매의 90%, 50% 티켓이 제공 됩니다. 형제가 많을수록 이득이라는 이 티켓 뿐만 아니라 1년에 25명을 선정하여 지인과 친구들, 친척들 등을 리스트업 시킬 수 있는 50% 스페셜 티켓이 제공되고 25명의 사람에게는 각 10장씩의 티켓팅이 가능합니다. 최종목적지에 상관없이 1명당 최대 멀티로 5-6섹터 까지 한 번에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에게 가장 환영받는 복지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3. 두바이 중심지에 나의 아파트가?

전 세계 160개국의 나라에서 온 승무원들은 베이스인 두바이에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데 높은 두바이의 부동산 물가를 생각하면 감히 렌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50-60평형의

아파트에 2-3인씩 방을 받게 되고 거실과 부엌을 셰어하게 됩니다. 숙소에는 풀과 짐 등의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기본 가구가 비치되어 있고 수도, 전기, 전화비 등의 공과금은 전부 무료입니다. 친구가 두바이를 방문할 시에는 2명까지 동시에 저의 아파트에서 스테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15분-20분 간격으로 배차되어 있는 셔틀버스로 무료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외부에 나가서 거주 시 주거지원비를 지원받게 되고 사무장 진급 시에는 1인 아파트를 받게 됩니다.

4. 두바이 전 지역에서 할인 가능한 만능 승무원카드

에미레이트항공 승무원에게는 승무원 할인 카드가 지급되는데 이 카드를 통해 5성급 호텔의 수영장과 짐의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과 부대시설, 바와 수영장의 음식 이용도 할인이구요! 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의 다른 도시인 아부다비의 제휴된 곳에서도 모두 사용 가능하며 심지어는 해외 특급호텔들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두바이 내 대부분의 레스토랑과 바, 대형쇼핑몰 및 소매점, 스포츠 시설, 해변, 호텔, 렌터카, 네일샵, 쿠킹 클래스, 요트파티 등 그 범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비싼 물가로 유명한 두바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지 혜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5. 유니폼 드라이클리닝까지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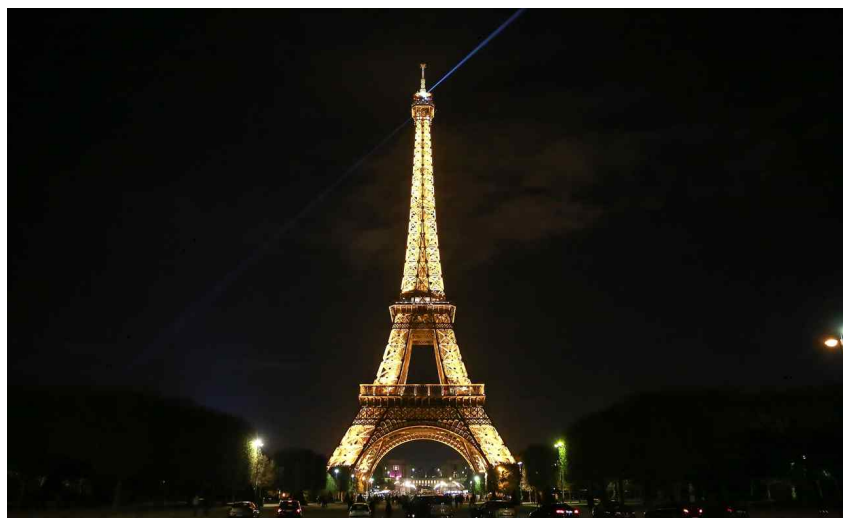
어느 날 비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리고 저의 세탁물도 찾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항공사도 유니폼 세탁을 해주나? 라는 생각 말이죠. 대부분의 항공사는 자비로 세탁을 충당해야 합니다. 매일 교복처럼 입어야 하는 유니폼 드라이클리닝 역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에미레이트항공에는 각 숙소와 본사 건물에 세탁소가 마련되어 있어 유니폼 드라이클리닝이 공짜로 가능하고, 또한 일반 세탁물 또한 드라이클리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통 상의 니트 한 개의 경우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은 두바이에 살고 있는 자취인들에게는 더없는 혜택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4. 낭만의 도시 파리로 떠나보아요

글/구성 37기 노푸른

프랑스의 수도이자 유럽의 대표도시 파리. 에펠탑, 개선문, 노트르담 대성당, 베르사유 궁전 같은 대표 건축물부터, 오르세 미술관과 루브르 박물관 까지, 파리는 짧은 일정으로 둘러보기 힘들 정도의 많은 랜드마크들과 예술 작품들이 많습니다.

에펠탑은 저녁이 되면 매 정각마다 5분간 레이저 쇼를 하는데 너무나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파리의 야경을 볼 수 있다.



미식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답게 파리에도 에스까르고, 푸아그라, 바게트, 크레페, 마카롱, 크로아상 등 미식가들을 유혹하는 유명 레스토랑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스트로 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다양한 음식점이 있어, 여행객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리지앵들은 아침에 크로아상과 에스프레소 한잔의 여유를 가지며 출근길에 오르는데 그래서인지 길거리에 빵 굽는 냄새가 솔솔 나서 나도 모르게 빵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곤 합니다. (▼라뒤레)



또한 파리는 쇼핑의 천국이라고 불리는데 파리 상제리제 명품거리, 몽쥬약국, 라발레빌리지 등을 많이 방문한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신흥여행 관광객들이 파리를 찾곤 한다.

하지만 낭만의 도시 파리를 너무 자유분방하게 다닐 순 없습니다. 길거리에 수많은 소매치기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이동하여야 한다.

파리의 날씨도 우리나라와 비슷하여 지금 프랑스로 떠난다면 화창하고 아름다운 파리를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5. ‘필리핀의 숨은 진주 보홀’

글/구성 39기 김정연

필리핀의 '숨은 진주'라 불리는 보홀이 있다. 필리핀의 유명지인 보라카이, 세부에 비해 관광 인프라는 낮지만, 비교적 알려지지 않아 여유로운 휴양을 즐기기에 자 하는 이들에게 최근 주목받는 곳이다.

필리핀에서 10번째로 큰 섬이자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를 자랑하는 보홀은 환상적인 수중환경을 보유한 곳으로 다이빙과 호핑투어 등 해양 활동들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여행지를 찾을 때,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로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양을 즐기고 싶다면 본문에서 소개될 보홀을 방문하여 즐겨보자.



인천에서 보홀까지는 직항으로 4시간 반, 마닐라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면 보홀까지 한 시간 반 정도 걸린다. 세부에서 페리를 타고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휴양지로 세부로 여행을 떠난 여행객들이 주로 찾던 휴양지다. 보홀은 제주도 면적의 2.2배며 인구도 제주도의 2배 정도이다.

보홀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아름다운 바다에 있다. 보홀 호핑투어는 필리핀의 전통 배인 방카를 타고 30분 정도만 나가면 수많은 물고기와 거북이를 직접 볼 수도 있다.

보홀이 왜 ‘필리핀의 숨겨진 진주’로 불리는지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누구나 알 수 있다. 수중의 천연 산호초, 빠르게 떼를 지어 움직이는 각양각색의 물고기들을 보면, 보홀 바다만의 특별한 생동감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타지에서 쉽게 보기 힘든 바다거북이들까지 쉽게 마주칠 수 있다. 보홀의 호핑투어는 이렇게 바닷속의 아름다움을 근거리에서 느낄 수 있다. 단, 보홀은 자연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이 과거의 친환경 방식에 머물러 있어 호핑투어 하루에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 방문 전 참고하도록 하자.

▼ 보홀의 여행명소 추천

1) 보홀 알로나 비치

필리핀 보홀 여행 명소인 알로나 비치는 보홀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다. 밀가루처럼 부드러운 하얀 모래사장이 독보적이며, 따스한 햇살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 해변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보라카이에 관광객이 많지 않았을 옛 모습이 지금의 알로나 비치라고 보면 된다. 알로나 비치는 넓은 해변, 부드러운 하얀 모래, 에메랄드 물빛에 낮은 수심, 깨끗하고 순박한 바다가 특징이다.

2) 보홀 초콜릿힐

초콜릿 힐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40위 안에 선정된 보홀 여행 명소다. 키세스 초콜릿 모양을 닮은 언덕이 지평선 끝까지 봉긋봉긋 솟아 있고 무려 1268개 이다. 초콜릿 힐에서 ATV와 버리카 체험도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없어도 쉬운 조작법으로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다. 키세스 초콜릿 모양을 닮은 언덕이 그중 가장 높은 언덕(높이 120m) 전망대에 오르려면 220개 계단을 올라야 한다. 전망대에 서면 보홀의 드넓은 밀림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휴양지 여행에서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작은 섬으로 '여행 속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본문에 소개된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체험하고 싶다면 필자가 소개한 보홀을 방문하여 여행해볼 것을 권장한다.



6. 서울의 경이로움을 온전히 느끼고 싶으신가요?

글/구성 39기 정희수

저는 한국인이 죽기 전에 한번쯤은 꼭 가 보아야하는 곳으로 급부상한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0층에서의 하루는 상상만으로도 벅차지만 실제로 그 뷰를 마주하면 말을 잇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인지 깜짝 프리포즈를 받은 고등학교 동창을, 결혼기념일로 방문한 친구의 언니를 우연히 고객으로 만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특권 중 하나는 계절과 날씨, 시간,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다른 감동을 주는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난히도 쾌청한 날은 한 폭의 그림과 같으며 비가 내리는 흐린 날은 한 장의 흑백사진을 보는 듯합니다. 처음으로 비행기가 제 눈높이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그 높이를 실감했던 기억도 납니다. 고객들은 이왕이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선호하지만 직원들 중에는 비 내리는 날이 더 운치 있다며 좋아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하루는 야간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려는데 몽실몽실한 구름이 제 아래로 짙게 깔려있어 당장이라도 뛰어들어 잠들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울의 모습을 다채롭게 표현하는 것도 저희 시그니엘서울을 찾아주신 고객들을 환영하는 하나의 방법이랍니다.

이러한 매력 덕분에 시그니엘서울을 재방문 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 많은 분들은 아직 멀리서 월드타워를 바라보며 “와, 진짜 높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알고 경험하면 더욱 재미있는 시그니엘서울과 월드타워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1. 외벽청소 : 사면이 유리로 이루어진 월드타워는 최소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외벽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555m의 꼭대기에서부터 곤돌라를 타고 내려오는 작업으로

날씨와 바람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 일정이 잡힌 후에도 수시로 변경되기 일쑤입니다. 깨끗한 유리너머로 뷰를 즐기고 싶다면 보통 외벽청소를 진행하는 4~5월 직후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안전 : 실제로 매 달 직원 대상의 화재와 지진등 비상상황 대피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 참여 훈련도 종종 실시합니다. 매번 비상통로 유도, 비상물품 제공, 환자 등역할도 달리 합니다. 안전에 자신하는 시설팀 동기는 지진이 나면 오히려 진도9에도 끄떡없는 타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그래도 저는 나갈 것 같습니다..)

3. 전망대 위 최고층 라운지 : 서울스카이 티켓을 구매 후 전망대에 오르면 타워의 진짜 꼭대기에 위치한 호텔에서 운영하는 123라운지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석양을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과 함께 인생사진 찍기 참 좋습니다.



4. 투숙 : 투숙을 할 때에는 꼭 옥조류 객실을 추가하세요. 시그니엘서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옥조류 객실은 통유리 옥실에서 반신욕을 하며 서울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높이로는 타워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밖에서 누가 보지 않을까하는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객실 소등 후 창 밖을 보면 말 그대로 압도적인 서울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고객으로 봄비는 주말과 공휴일 보다는 평일에 방문하는 것이 월~썬 여유로운 호캉스를 즐길 수 있으며 전 투숙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에서 무제한 샴페인 서비스도 이용하세요. (금액은 평균 50만원부터 시작)

5. BAR81 : 시그니엘서울 81층에는 예약 없이도 이용 가능한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는 BAR가 있습니다. 한강을 파노라마로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이 곳의 운영시간은 새벽 1시까지입니다.(주말은 2시까지)

7. 우리가 몰랐던 이슬람 이야기 – 신성한 한 달, 라마단

글/구성 38기 송미나

지난 6월5일, 무슬림(이슬람 교도)들의 최대 명절인 라마단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라마단이란 아랍어로 ‘더운 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슬람력(曆)에서의 9번째 달을 말합니다. 라마단은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신의 계시를 받아 코란(Quran)의 첫 번째 경전을 받은 신성한 달로 믿어져 오고 있으며, 무슬림들은 이 한 달 동안 일출시간 부터 일몰시간까지 매일 의무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6년간 중동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라마단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라마단 기간은 언제인가요?

보통 라마단기간의 시작은 이슬람력 9번째 달의 시작을 알리는 초승달이 나타난 때를 기점으로 다음 초승달이 나타날 때까지 약 한달간 지속이 됩니다. 지역과 교리에 따라 매년 날짜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5월, 6월입니다. 이 기간에는 금식으로 인해 저녁까지 모든 레스토랑이 문을 닫고, 관공서와 일부 기업들은 일찍 업무를 종료합니다. 밖이나 쇼핑몰에서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 또한 금지이니 이슬람국가를 여행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들의 생활은?

전세계 인구의 4분의1인 18억명의 이슬람 교도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 철저히 절제된 생활을 합니다. 해가 떠있는 동안 단식을 하게 되는데, 물을 포함한 모든 음식과 음료 일체를 먹지 않고 음주와 흡연, 성생활 또한 중지합니다. 즉 라마단 기간은 가능한 한 모든 감각적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말그대로 금욕의 기간입니다. 무슬림들에게 라마단은 한달동안 이슬람 경전의 교리를 따르며 자아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세속으로부터 벗어나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단식 외에도 무슬림들은 이 기간 동안 하루 5번의 의무기도, 자기성찰, 이슬람 사원에

서의 공동기도, 코란 독서, 자선 및 구호 등을 통해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알라신으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하루 동안의 힘겨운 단식을 끝내고 나면 온 가족이 모여 성대한 저녁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단식 후 먹는 저녁식사를 이프타르(iftar)라고 하며,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는 그 지역 전통음식을 위주로 구성된 이프타르 특별 메뉴나 부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슬람교에서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다섯 가지 기본 계율에는 신앙고백, 기도, 자선, 금식, 그리고 성지순례가 있는데, 이 중 금식에 해당하는 기간이 라마단 기간입니다.

단식의 기원은 하늘로부터 이슬람 경전 코란을 하사 받은 것에 유래하는데, 이 성스러운 사건을 기념하고자 한 달간 단식을 수행합니다. 단식의 목적은 인간의 자제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음식물을 제한하는 동시에 신앙심을 높이고 평소 어려움을 모르던 일반인들로 하여금 배고프고 가난한 자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고 그를 통하여 배려심을 키운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단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물론 예외도 존재합니다. 전쟁 중인 군인,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 어린이, 노약자, 월경 중인 여자, 장기 여행이나 격심한 육체노동을 하는 자들, 환자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단식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득이한 이유로 라마단 기간 동안 단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라마단이 끝난 후에라도 해가 바뀌기 전에 금식을 못한 일수를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외국인 등 비무슬림도 단식을 해야 하나요? (외국인들의 라마단 에티켓)

이슬람 교도가 아니라면 함께 단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국가에 거주하는 비(非) 무슬림 외국인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 주변의 무슬림 친구, 동료들을 사려 깊게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 중인 무슬림들 면전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좋고, 또 흡연을 할 때에도 평소와 다르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을 이용할 것은 권장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동료가 일찍 일을 시작하여 일찍 퇴근을 하는 것처럼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 이해해주고, 그들의 업무 일부를 대신 도맡아 해주는 등 여러 가지로 무슬림들을 배려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라마단 기간에는 식음뿐 아니라 성욕, 물욕 등도 절제해야 하므로 화려한 옷이나 노출이 심한 옷을 되도록 피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을 하는 것 등을 삼가야 합니다.

라마단이 끝나면?



보통 중동 국가에서는 라마단이 끝나는 동시에 3일간 이드 알 피트르(Eid al-Fitr)라고 하는 성대한 축제가 열리며, 이를 간단히 줄여 이드(Eid)라고 합니다. 축제 첫날 아침 새 옷으로 갈아입고 사원에 모여 예배를 드린 다음, 친척과 친구를 방문하고 선물을 교환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원에 헌금을 바치고 달콤한 음식을 중심으로 풍성하게 상을 차려 가족과 친지, 이웃에게 대접하며 서로 덕담을 나눕니다. 이드 축제 기간 동안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대대적인 세일이 진행되는데 이때 명품 브랜드부터 전자제품까지 파격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드 세일 말고도 7~8월에 더 큰 정기세일 기간이 있으니 중동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기간 맞춰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국내 입국 면세점의 도입과 향후 면세 한도

글/구성 38기 유은휘

2019년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이미 전 세계 62개국 115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국민 여론 조사 결과 84%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

성함에 따라 6개월 간 시범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전국 공항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신설 된 입국장 면세점은 총 3곳에서 운영되는데, 제1터미널은 에스엠면세점이 동&서편 각 190㎡ 규모의 매장을, 제2터미널에는 엔타스듀티프리 가 1곳의 매장(326㎡)을 운영한다. 홍 부총리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국제수지가 약 347억원 개선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에 600여 개의 직간접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옥 국토부 2차관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운영사업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은 "입국장 면세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입국장 면세점의 수입을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투입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그에 발맞춘 변화일까. 현재 우리나라의 면세 한도는 출국장(시내면세점 포함) 면세점에서 3000달러,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여기에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ml는 별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다. 내국인에 대한 면세점 구매한도는 1979년 500달러로 도입됐으며 이후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로 상향된 이후 10년째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현행 3600달러(약 425만원)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면세 한도 역시 600달러에서 추가 상향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필요성과 추

진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기재부는 최근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면세 한도가 늘어난 건 아니라고 설명했고, 또한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보아가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해 본 여행객들의 반응은, '무거운 주류나 면세품들을 여행 내내 휴대하지 않아서 편리했고, 입국장 면세점의 위치가 좋았다.' 또는 '인터넷 면세쇼핑 역시 가능해서,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 등등 긍정적인 평도 많은 반면 '입국장 면세점에 국산 브랜드의 비율이 높으나, 국산 브랜드의 경우 국내 유통가를 고려했을 경우 면세보다 유통가가 저렴한 경우가 많아 비효율적이다.' 혹은 '면세점의 규모가 적고 담배를 구입할 수 없다는 점이 이용객의 증감을 불러 오기 힘들어 보인다.' 는 부정적인 반응 역시 알아 볼 수 있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신설된 입국장 면세점 총 3곳 31일 영업 시작



변화하는 면세 제도가 앞으로의 여행 풍경에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킬지, 또한 관광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 변화가 기대되는데 아무래도 면세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것은 면세 한도의 상향이 아닐까. 내수 시장의 교란과 특정계층의 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입국장 면세점이나 면세 한도의 상향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고, 그 결과 현재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미 국내 여행객들에게는 출국하며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로 재반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었고, 면세품의 한도가 70만원이라는 것은 정부가 우려하는 특정 계층의 범위가 얼마나 좁은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러니 면세한도가 어디까지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소비 한도라는 점과 국내 시장 교란을 위해 필요한 규모적 최저한도를 계산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 한 목소리에 응답했으니 다른 목소리에도 속히 응답이 나오고 그것이 여러 여행객들에게 새로운 여행의 즐거움과 설렘을 선사하길 기대하는 바이다.

9. 축제 & 페스티벌

글/구성 37기 김서정

안녕하십니까, 융합전공 37기 김서정입니다. 봄의 대미를 장식하고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이맘때에는 각각의 특색을 살린 페스티벌이나 축제 등이 많이 개최됩니다. 저희 국관원분들도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페스티벌과 축제 몇 가지를 추천 드리겠습니다.

센텀맥주축제

맥주 덕후들을 한자리에 모을 봄의 대미를 장식하는 맥주 축제가 부산에서 열린다. 유독 빨리 찾아온 더위에 맛있는 맥주와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부산 센텀 맥주 축제에 방문하는 것도 여름이 오기 전 즐기는 시원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일시 : 2019.05.31(금) - 2019.06.16(일)
장소 : 해운대KNN타워 광장
요금 : 성인 12,000원 / 미성년자 : 3000원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서울에서 즐길 수 있는데요.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은 밤이면 열렸다가 아침이면 사라지는 도깨비 같은 시장이라는 의미로 특정한 시간이 되면 새로운 공간,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명소가 가진 매력을 즐기고 한강을 바라보며 먹거리와 장터 구경 등 매력을 느껴보세요.



일시 : 2019.04.05(금) - 2019.10.27(일)
장소 : 여의도 한강공원 / 반포한강공원 / DDP / 청계천 / 문화비축기지

2019 워터밤

작년보다 더 덥다는 올여름 벌써 더위가 찾아오고 있다. 이런 더위를 물 폭탄으로 시원하게 날려줄 워터밤을 소개



합니다. 워터밤은 음악, 예능 물놀이를 결합한 축제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6개 도시 개최로 멀리 가지 않아도 자신의 지역에서 워터밤을 즐길 수 있는데요. 각자 원하는 팀 컬러를 선택하여 물 폭탄과 함께 유명 아티스트들의 무대, 직접 물총을 들고 워터 파이팅을 벌일 수 있는 이벤트, 휴식과 함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일시 : 7월 13일 부산 / 7월 20일-21일 서울 / 8월 10일 인천 / 8월 15일 대전 / 8월 17일 대구 / 8월 24일 광주
가격 : 110,000원 (1인 4매까지 구매 가능)

2019 지산 락 페스티벌



2009년부터 개최된 지산 락 페스티벌이 2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작년에는 개최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였는데요, 음악뿐 아니라 캠핑과 휴식을 즐길 수 있어 각박한 도시를 떠나 지친 감성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지산 락 페스티벌은 락에서 EDM, 힙합까지 다양한 음악의 장르를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캠핑 및 다양한 야외활동과 체험을 통해 관람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일시 : 2019.07.26 - 2019.07.28
장소 : 지산포레스트리조트
가격 : 3일권 정가 260,000원 / 블라인드 156,000원

보령머드축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보령 머드 축제를 꼽을 수 있는데요, 보령은 예로부터 자연이 풍부하고 산 좋고 물이 맑아서 축복의 땅이라고도 불립니다. 보령 머드는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과 게르마늄, 미네랄, 벤토나이트의 함량이 높아 피부미용



에 탁월합니다. 행사에는 갯벌게임 체험, 갯벌 장애물 마라톤 대회, 머드 체험관, 머드 슬라이드, 익사이팅 머드 장애물 극기체험 머드런 등 머드를 느낄 수 있는 행사들부터 힙합 레이브파티, EDM 페스티벌,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특히나 올해에는 최초로 야간개장이 도입되고 역대 최강의 K-POP 아이돌 라인업을 구축하여 대한민국 글로벌 축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 하니 더욱 기대되는 축제입니다.

일시 : 2019.07.19 - 2019.07.28

장소 :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및 시민탐 광장

요금 : 월 ~ 목 : 성인 12,000원 / 청소년 10,000원

금 ~ 일 : 성인 14,000원 / 청소년 12,000원

10. 미야자키 해외답사

글/구성 38기 성주한

5월 10일~5월 12일 원장님, 행정실 선생님, 원우들과 함께한 꿈만 같았던 3일의 답사 후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첫째 날, 이른 아침 우리는 인천공항을 향해 각자의 집에서 출발 했습니다. 인천공항 스타벅스 앞에서 만난 우리는 원우회에서 준비한 샌딩백을 받아 개별적으로 체크인 한 후 출발 게이트 앞에서 만나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답사를 출발하기 전이라 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직은 서먹서먹한 관계의 원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친한 분들끼리 쇼핑을 하고 저희는 게이트 앞에서 모였습니다. 출발하기 20분 전 교수님, 행정실 선생님들, 원우 모두가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고 미야자키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1시간 30여분의 비행을 마치고 미야자키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 제주도와 정말 닮았다는 느낌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야자수들이 많이 있고, 날씨 또한 포근해서 제주도에 도착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신호등, 주택들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정말 미야자키에 와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일정으로 공항에서 15분 정도를 이동하여 100엔 스시집에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일찍 일어나서 제대로 된 아침을 먹지 못하고 출발한 탓인지 테이블마다 수십 개의 접시가 쌓여있습니다. 대부분의 테이블이 몇십 개의 접시를 비웠지만 가격은 예상한 가격에 거의 맞게 나왔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엔 스시로 배를 채운 우리 일행은 미야자키 역에 위치한 미야자키현 관광청을 방문했습니다. 미야자키 관광청에서 우리 답사단을 아주 친절하게 맞이해주셨고! 관광청 담당자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미야자키 소개를 피피티로 준비해서 발표해주셨습니다. 피피티를 보고 미야자키는 휴양 및 레포츠의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골프뿐만 아니라 서핑 등의 많은 테마의 상품들을 키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청 방문을 끝마치고 답사단은 도깨비빨래판이 있는 아오시마로 이동했습니다. 아오시마는 미야자키에서 조금 떨어진 해변 마을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비치와 비치펌들이 있어서 들어서자마자 아주 평화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희는 용암과 바다가 만나서 형성된 도깨비빨래판 옆을 걸으며 신기한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추측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와 도깨비빨래판을 배경으로 많은 사진들을 찍은 저희 답사단은 호리끼리 고개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호리끼리 고개로 이동하는 도중에도 도깨비빨래판 지형이 형성된 바다를 볼 수 있었고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리끼리 고개에 도착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언덕위에 있는 원숭이였습니다. 저희의 방문을 반기는 것인지 경계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내며 모여있는 원숭이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원숭이와 절벽아래 도깨비빨래판들을 구경하고 저녁을 먹기 위해 미야자키 시내로 향했습니다.

어느 쇼핑몰에 위치한 일본식 뷔페레스토랑에 도착한 저희는 저녁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는 한국에서 출발할 때 보다는 조금은 가까워진 사이가 되어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끝마친 우리는 2개의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팀은 호텔로 돌아가서 휴식하는 팀, 두 번째 팀은 근처 이자카야로 2차를 하러가는 팀이었습니다. 두 번째 팀 이자카야팀은 구글맵을 통해 찾은 15명 정도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는 아지카야를 찾아가다가 중간 새로운 이자카야를 만나 들어갔습니다. 준비 없이 들어갔지만 미야자키를 대표하는 맛집이었고 그곳에서 사시미, 야끼도리 등 많은 일본식 안주와 사케, 일본소주 등을 먹으면서 아직은 서먹서먹한 관계를 풀어나가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끝날 무렵 모두 흥이 올라 3차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지만 시간이 늦은 관계로 숙소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고 그렇게 첫째 날을 마무리 했습니다.

둘째 날, 저희는 여느 답사와는 달리 자유일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온몰팀, 온천팀, 주조공장 방문팀 이렇게 3가지 팀으로 나뉘었고 저는 온천팀에 속해서 아오시마에 있는 온천을 다녀왔습니다. 온천팀은 미야자키 역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아오시마로 이동했습니다. 전용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보다 30분가량 더 걸렸지만, 미야자키 시내를

구석구석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오시마에 도착한 저희는 12시쯤에 다시 만나기로하고 온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날 과음을 했던 저는 다른 남자원우분들과 함께 아오시마에서 가장 유명한 우동집으로 해장을 하러갔습니다. 오픈한지 5분이 지났는데 식당은 한테이블 빼고 만석일 정도로 소문난 현지인 맛집이었습니다. 우동과 메밀을 시켰는데 우동은 우리나라의 우동과는 조금은 다른 개념으로 우동면을 우동 소스에 찍어먹는 새로운 우동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해장을 끝내고 30분 동안 빠르게 온천을 이용했습니다. 화려하고 큰 온천은 노천탕도 있었고 일본 온천을 빠르고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노천탕 이용을 끝내고 우리는 온천팀원들의 의견대로 남은시간 이온몰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온몰은 우리나라의 스타필드와 같은 느낌의 큰 쇼핑몰이었습니다. 이온몰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쇼핑을 한 우리는 기존의 이온몰팀과 합류하여 미야자키역 사케 집에서 간단하게 사케를 한잔씩하고 다시 호텔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호텔에서 저희는 짐을 풀고 바로 저녁 만찬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은 호텔 측에서의 많은 배려 덕분에 와규 샤브샤브를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 저녁도 사케, 위스키, 일본 소주 등을 일본의 술과 함께 일본의 분위기를 느끼며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희는 조식을 먹고 오비 성하마을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에서 조금 거리가 있어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비 성하마을에 도착한 우리는 쿠폰지도를 받아두고 오비 성하마을에만 있는 많은 가게들을 방문하고 쿠폰을 이용한 구매를 했습니다. 이러한 쿠폰 시스템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들여와서 잘 이용한다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비 성하마을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은 우리는 우도신궁으로 향했습니다. 우도신궁은 우리나라의 해동 용궁사와 비슷하게 바다에 있는 신궁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도신궁을 잠시 들린 우리는 모아이 상이 있는 선셋메 니치난으로 향했습니다. 이 장소는 많은 분들이 미야자키 여행에서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모아이 상에서 많은 사진들을 찍고 공원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여유를 가졌습니다. 이후 저희는 공항으로 돌아와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해외답사는 자유일정과 단체일정의 조화가 아주 잘 이루어져 미야자키를 아주 알차게 즐기고 올 수 있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